

세계화와 복지국가 선호: 오프쇼어링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나라**

권혁용***

이 논문은 세계화의 한 현상인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오프쇼어링의 가장 큰 위협으로 실업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쇼어링 수준이 높은 직업군의 개인들은 복지정책을 선호하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프쇼어링이 복지국가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는 개인의 기술 특정성(skill specificity)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특정성이 높은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경우, 기술특정성이 낮거나 오프쇼어링 위협이 작은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 비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14개 유럽 국가의 응답자들을 포함한 2008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통해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술 특정성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 개인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가능성이 높을 때 복지국가 선호가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오프쇼어링, 기술특정성, 복지국가, 사회정책, 정책선호

1. 서론

그동안 비교정치경제 분야에서 재분배 및 사회정책 선호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문헌이 많이 축적되어 왔다. 먼저 Meltzer-Richard 모델(Meltzer & Richard, 1981)

* 날카롭고 건설적인 논평과 제안을 해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기획연구과제 지원과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7-S1A3A2066657).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hkwon@korea.ac.kr).

을 기반으로 소득불평등의 정도나 소득불평등의 구조가 복지국가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Lupu & Pontusson, 2011; Moene & Wallerstein, 2001). 그밖에 선거제도(Iversen & Soskice, 2006)나 종교(Scheve & Stasavage, 2006), 개인의 사회 정체성(Shayo, 2009), 공정성(Finseraas, 2009)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한편 에스닉 이질성(ethnic heterogeneity)이나(Finseraas, 2012) 노동시장 분화와 이민의 상호작용 효과(Alt & Iversen, 2017), 에스닉 동질성(ethnic homogeneity)에 기초한 이타심(altruism) 등으로(Rueda, 2018) 이민자 유입 및 증가에 따른 복지태도를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직업별 실업 위험수준(Rehm, 2009) 혹은 직업별 기술 특정성(skill-specificity)에서 기인하는 실업 위험이 개인의 재분배 선호를 형성하거나(Iversen & Soskice, 2001) 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 정책을 제공토록 한다(Estevez-Abe et al., 2001)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프쇼어링¹⁾과 복지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프쇼어링은 세계화의 주요 현상으로,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뜻한다(Blinder, 2009). 이러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오프쇼어링은 실업이나 고용 양극화, 소득 불평등, 임금 감소 등 국내 노동시장과 국내 경제 전반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Antràs & Helpman, 2004; Antràs et al., 2006; Antràs & Chor, 2013; Baldwin & Venables, 2013; Costinot et al., 2013; Kramarz, 2008; Krishna & Senses, 2014; Margalit, 2011; Sly & Soderbery, 2014; Walter, 2010). 오프쇼어링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효과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실업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위험이 개인들의 복지국가 지지로 이어진다면(Alt & Iversen, 2017; Iversen & Soskice, 2001; Rehm, 2009;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오프쇼어링의 부정적 여파, 특히 실업이 복지국가 선호를 증가시키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오프쇼어링 수준이 비슷함에도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복지국가 선호가 발견되는가? 다시 말해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의 고리를 잇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 우리는 개인의 기술 특정성(skill specificity)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특정성과 오프쇼어링 두 경우 모두 실업과 밀접히 연관돼있으므로 둘의 상호작용 효과는 복지국가 지지로 이어지게 될 것이

1) 오프쇼어링은 국내 문헌에서 해외생산(권철우·황욱, 2018)이나 해외아웃소싱(권형기, 2012) 혹은 원어 그대로 오프쇼어링(권기철, 2011; 남상섭, 2018; 박문수 외, 2013; 이경희 외, 2010; 이상욱 외, 2016; 조장희·허정, 2013) 등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Blinder(2009)의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아웃소싱과의 구분을 위해 원어 그대로 오프쇼어링으로 표기한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varieties of capitalism)과 복지국가 선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특정적 기술직은 실업과 그 여파에 취약하므로 오프쇼어링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을 선호하지만, 오프쇼어링의 잠재적 또는 실질적 효과로 인해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이 그렇지 않은 특정적 기술 직업군보다 복지국가를 더 지지할 것이다. 반면 일반적 기술(general skill)을 보유한 개인은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8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다.

기존 오프쇼어링의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오프쇼어링과 재분배 선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주로 한 국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둘의 확실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Garrett, 1998; Jensen et al., 2017; Mughan & Lacy, 2002; Rodrik, 1997;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여를 제시한다. 첫째, 세계화의 주요 현상의 하나인 오프쇼어링과 개인의 복지정책 선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기술 특정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메커니즘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다. 둘째,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서, 유럽의 14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응답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함으로써 일반화된 경험적 패턴을 발견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우리의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 후, 검증 가능한 가설을 도출한다. 3절에서 자료와 변수에 대한 소개를 제시하고 4절에서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5절은 결론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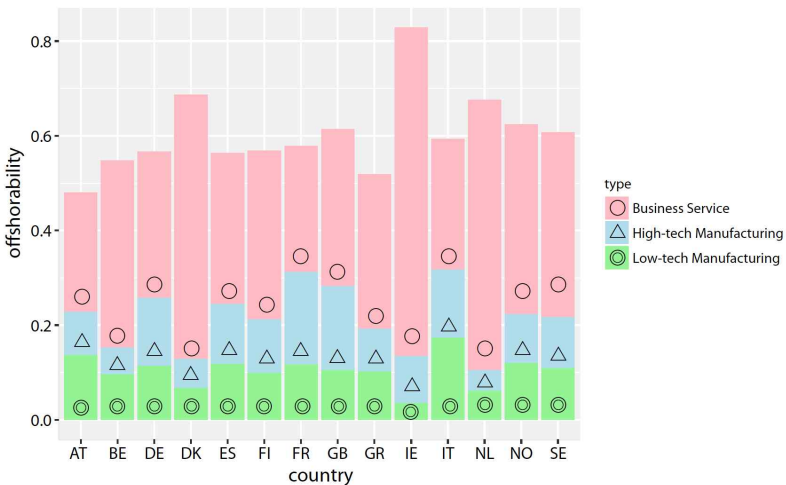
II. 이론적 주장: 오프쇼어링, 기술특정성, 그리고 복지국가 선호

1. 오프쇼어링의 정치경제학

2) Rommel & Walter(2018)가 dataverse에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아마존 닷컴(Amazon.com)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중무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live chat)은 오프쇼어링의 산물이다. 오프쇼어링은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는 아웃소싱(outsourcing)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웃소싱이 다른 회사 간에 그리고 국내외에 무관하게 발생하는 반면, 오프쇼어링은 동일한 회사 내에서 해외 이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linder, 2009).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따르면(OECD, 2010), 경기침체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 오프쇼어링의 수준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프쇼어링이 세계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은 과거에 공정이 규격화된 제조업 분야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Acemoglu & Autor, 2011), <그림 1>이 보여주는 것처럼 서비스 부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림 1>은 2015년의 분야별 오프쇼어링 수준을 14개 유럽 국가별로 나타내고 있다. 아일랜드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비스 부문의 비율이 제조업 부문의 오프쇼어링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분야별 오프쇼어링 수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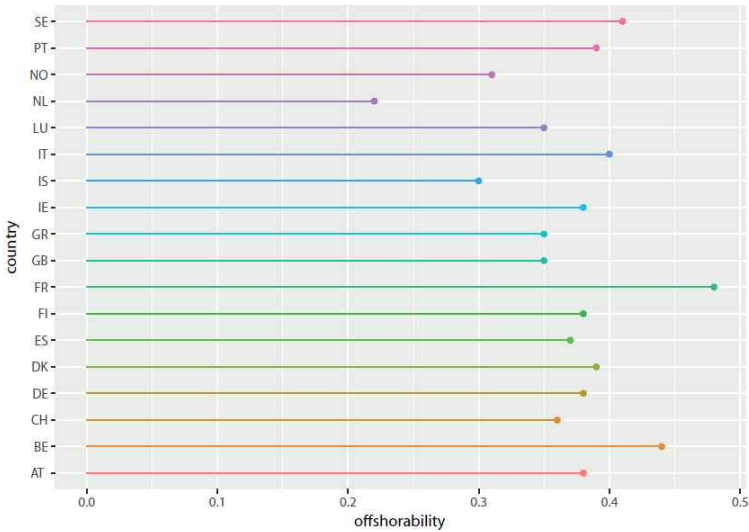
자료: OECD (2016).

오프쇼어링이 국내 노동시장 전반에 가지는 파급력과 사회경제적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점을 반영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오프쇼어링의 운영방식이나 정치적

제적 효과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공급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사례에서는 오프쇼어링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였다(Antràs & Chor, 2013; Baldwin & Venables, 2013; Costinot et al., 2013). 더하여 다국적 기업이 오프쇼어링과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선택하는 방식이나(Antràs & Helpman, 2004), 오프쇼어링의 작동방식이나 구조 등에 집중하기도 했다(Antràs et al., 2006). 이밖에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고려해, 임금이나 고용, 소득불평등, 노동시장 이중화 등 노동시장과 오프쇼어링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존재한다(Anderson & Gascon, 2007; Mandelman & Zlate, 2016; Ottaviano et al., 2013; Wright, 2014).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오프쇼어링 등 생산 세계화(global production)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다수의 국내 문헌은 오프쇼어링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권형기, 2012; 권철우·황욱, 2018; Jeon & Kwon, 2018; Kwon, 2011). 특히 권형기(2012)는 미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를 통해 생산 세계화의 효과가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국가별 각기 다른 생산 세계화 방식을 결정요인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미국식에 해당하는 “병렬적 분업”은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이익확대에 일조한 반면, 독일식의 “수직적 전문화”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권형기, 2012). 한편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임금협상(wage bargaining) 수준이나 숙련 프리미엄을 강화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 내 오프쇼어링의 위협 효과가 기업의 임금협상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비숙련과 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권철우·황욱, 2018; Jeon & Kwon, 2018; Kwon, 2011). 더불어 오프쇼어링 결정 요인이나(조장희·허정, 2013; Kwon, 2018) 오프쇼어링과 기업생산성에 관한 연구(남상섭, 2018; 이경희 외, 2010; 박문수 외, 2013)에서는 오프쇼어링의 결과로 기업 생산성이 증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2〉 국가별 평균 오프쇼어링 수준, 2002~2010



자료: Rommel & Walter(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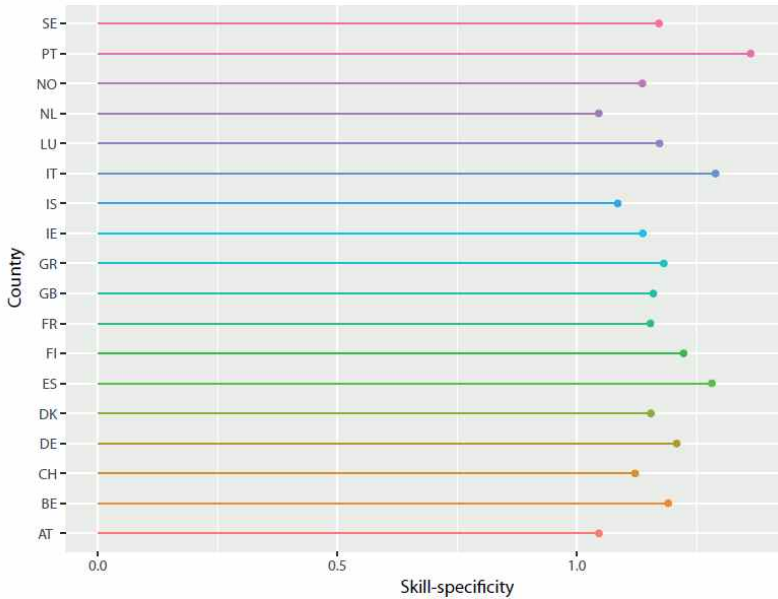
〈그림 2〉는 2002~2010년 시기 유럽의 18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오프쇼어링 수준을 보여준다.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오프쇼어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오프쇼어링 편차를 발견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이 곧 국내 일자리 유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오프쇼어링의 증가가 곧 개인들의 복지국가 선호로 이어진다고 보았다(Cho et al., 2015; Margalit, 2011; Mandelman & Zlate, 2016;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2017). 개인의 정책선호가 정치행태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의 관계는 정치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스위스 등 한 국가의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고, 인과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Jensen et al., 2017; Mughan & Lacy, 2002;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주목할 만한 연구는 오프쇼어링과 기술 수준(skill level)의 상호작용 효과가 복지정책 선호 및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Rommel & Walter의 논문이다(Rommel & Walter, 2018).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저숙련 노동자들은 오프쇼어링

여부에 무관하게 복지정책 확대를 선호하지만, 오프쇼어링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저숙련 노동자들에 비해 선호가 더욱 증가한다. 반대로 고숙련 노동자들이나 관리직 노동자들은 오프쇼어링과 관계없이 재분배 선호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오프쇼어링이 발생하면 오히려 고용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변화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숙련 노동자들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가 낮아진다.

Rommel & Walter의 연구(Rommel & Walter, 2018)가 기술수준의 차별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서 강조하는 기술유형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이론적 예측을 도출하게 된다. 기술특정성 수준이 높은 경우, 다른 산업부문 또는 다른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기술이전성(transferability)이 낮기 때문에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재취업이 어려워지므로 실업에 매우 취약하고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 등의 복지정책을 선호하게 된다(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그림 3〉 국가별 평균 기술특정성, 2002-2010



자료: Rommel & Walter(2018).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 연구는 기술 수준이 아니라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 여부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3>은 2002~2010년 시기 국가별 평균 기술특정성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14개 유럽 국가 응답자들의 기술특정성은 평균 1.17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3>에서 국가 간 편차를 발견할 수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기술특정성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이 평균적으로 낮은 기술특정성 수치를 보여준다.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은 오프쇼어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만(Iversen & Soskice, 2001),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재분배 선호가 더 높을 것이다. 한편 일반적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은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때 복지국가 확대에 우호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국가 확대에 대한 지지가 낮을 것이다.

2. 오프쇼어링, 기술특정성, 그리고 복지국가 선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프쇼어링은 실업이나 임금 감소 등 국내 노동시장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사회보험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중재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또는 산업특정적 기술(firm- or sector-specific skill)은 기술의 불이전성(nontransferability) 또는 낮은 이전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특정적 기술은 그 자체로 실업의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기술특정성이 높은 개인들은 실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하고(Iversen & Soskice, 2001), 이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적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과,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호 및 실업보호 등 다양한 사회보험 정책을 제공한다(Estevez-Abe et al., 2001; Gingrich & Ansell, 2012). 오프쇼어링과 기술 특정성 둘 다 실업 위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정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오프쇼어링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지 정책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특정적 기술을 가진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었을 때 실업 위험이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 높은 복지국가 선호가 예상된다. <표 1>은 네 가지 경우의 조합에 예상되는 개인의 정책선호를 표시한 것이다.

〈표 1〉 오프쇼어링과 기술특정성에 따른 복지정책 선호 예측

		기술 특정성(Skill Specificity)	
		특정적 기술 (specific skill)	일반적 기술 (general skill)
오프쇼어링 여부 (Offshorability)	O	++	+
	X	+	-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특정적 기술직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경우와 (2) 특정적 기술직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3) 일반적 기술직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경우, 그리고 (4) 일반적 기술직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이다.

1) 특정적 기술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경우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노동자가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받을 경우, 아래의 세 집단에 비해 복지국가 선호가 가장 높을 것이다. 기술 특정성이 높다는 것은 곧 기술 이전성(transferability)이 낮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하므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그러므로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보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쇼어링의 위협까지 겹친다면 개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복지국가를 요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가지 경우의 조합 중에서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특정적 기술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노동자가 오프쇼어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때, 이들의 복지국가 선호는 첫 번째 경우 다음으로 높을 것이다. 이 개인들은 특정적 기술에서 기인하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를 주장하기 때문에(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오프쇼어링과 무관하게 복지국가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1)의 경우와 다르게 오프쇼어링의 위협이 덜 할 것이므로 기술 특정성과 관련된 사회보험 정책 선호가 높지만, (1)의 경우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높을 것이다.

3) 일반적 기술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경우

일반적 기술을 보유한 개인들은 기술유형에서 비롯되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험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적 기술 노동자들에 비해 사회보험 선호가 낮다 (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그러나 오프쇼어링의 확산으로부터 비롯되는 실직 위험을 겪게 되면서 (2)의 개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지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4) 일반적 기술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 기술을 가진 개인들은 기술의 특성상 사회보호 정책 선호가 낮기 때문에, 이들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 선호는 더욱 감소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세 집단에 비해 복지국가 확대에 대한 선호가 낮을 것이다.

III. 경험적 분석: 자료와 변수

위에서 제시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유럽의 14개국³⁾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8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의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보호 선호(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이다. 사회보호 선호는 2008년 유럽사회조사의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문항은 다음의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것이다: “정부는 실직자들의 생활수준에 책임이 있다(standard of living for the unemployed [wa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응답은 0부터 10까지로 측정되었는데 ‘0’은 ‘매우 그렇지 않음’, ‘10’은 ‘매우 그러함’을 나타낸다. 오프쇼어링과 기술 특정성 모두 실업 위험과 연관이 있으므로 사회보험(사회보호) 선호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종속변수를 재분배 선호(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부록의 <표 A.2>에 제시), 사회보호 선호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재

3) 분석에 포함된 14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분배 선호는 유럽사회조사의 다음 문항을 바탕으로 1(매우 동의하지 않음, strongly disagree)에서 5(매우 동의, strongly agree)까지 측정되었다: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reduce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이 분석의 독립변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기술특정성(skill-specificity)이다. 개인 수준에서 기술특정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특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직업군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해당 직업군별 기술특정성 수준을 대입한 자료를 사용한다(Iversen & Soskice, 2001; Rommel & Walter, 2018). 이는 연속형 자료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개인이 특정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방식의 기술특정성 측정지표를 활용해왔다. 기술의 특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 관련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은 오프쇼어링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확대를 선호할 것이다.⁴⁾

둘째,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다. 오프쇼어링은 현상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는 물론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Rommel & Walter의 연구를 따라서 직업군별 오프쇼어링(job offshorability) 수준 데이터를 사용한다(Rommel & Walter, 2018). 이 측정자료는 Rommel & Walter(2018)가 유럽사회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직업에 Blinder(2009)의 직업별 오프쇼어링 수준 분류를 대입하여 측정한 것으로 1과 0의 더미변수로 변환한 것이다. 1은 오프쇼어링 가능성이 있음을, 0은 없음을 나타낸다.⁶⁾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4) 고부가가치 기술(higher value-added skills)을 보유한 특정적 기술직들은 오프쇼어링을 통해 임금 상승 등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경우 복지정책 선호가 낮을 가능성도 있다.

5) 기존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오프쇼어링 측정을 시도했다(Bernard & Fort, 2013; Ebenstein et al., 2014; Hummels et al., 2014; Johnson & Noguera, 2012; Koopman et al., 2014; Mandelman & Zlate, 2016; Milberg & Winkler, 2009; Ottaviano et al., 2013; Zlate, 2016). (1) 수직적 FDI로 대신하거나(Zlate, 2016) (2) 오프쇼어링에 드는 비용이 적을수록 오프쇼어링이 증가한다고 보기도 하며(Mandelman & Zlate, 2016) (3) 오프쇼어링으로 생산된 수입품의 총 가치나 (Hummels et al., 2014) (4) 국내 무역통계나 세계산업연관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Johnson & Noguera, 2012; Koopman et al., 2014).

6) Blinder(2009)는 직업별 오프쇼어링 수준을 0부터 100(%)까지 분류하였다. Rommel & Walter(2018)는 이 분류표를 바탕으로 여러 방식으로 오프쇼어링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오프쇼어링 가능성이 25% 미만일 때 '0'으로, 나머지(25-100)는 모두 '1'로 변환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Margalit, 2011;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2017), 오프쇼어링의 가능성에 노출된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사회보호 정책을 기본적으로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오프쇼어링 측정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개념적으로 생산의 해외이전인데 반해서, 이 분석에서 사용하는 측정자료는 직업군에 따른 측정이라는 점이다. 서로 다른 국가의 응답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직업군에 속한다면, 오프쇼어링 수치가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자료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⁷⁾

셋째,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다. 직업별 개인의 오프쇼어링 여부는 마찬가지로 0과 1의 더미 변수이며 기술특정성은 연속값을 갖는다. 상호작용항을 분석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프쇼어링과 기술특정성의 상호작용이 복지국가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정적 기술을 보유한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확대에 찬성하지만, 이 때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경우 실업 위험이 가중되므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복지정책 선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반적 기술을 보유한 개인들은 오프쇼어링에 노출됐을 때 복지국가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분배 선호가 낮을 것이다.

분석에 포함한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변수들이다. 연령과 세후 가구소득, 공공부문 여부, 기술수준(skill-level), 고용상태(실직 여부),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실직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 복지정책을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고용상태는 복지 태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사기업(private sector) 노동자들에 비해 실업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에 관심이 덜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었다. 노조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이 사회보험 등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는 중요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어서 개인의 종교가 복지국가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Scheve & Stasavage, 2006) 사회문화적 변수로 종교(religiosity)를 추가했다. 그리고 국가 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FDI 스톡(stock)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기술수준과 오프쇼어링 여부의 상호작용항(기술수준×오프쇼어링)을 포함하였다(Rommel & Walter, 2018).

분석에 포함된 14개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별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관찰하였고, 종속변수가 0~10의 척도로 나타난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7) 이러한 측정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준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IV. 분석 결과

〈표 2〉는 OLS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 1은 국가 고정효과(county fixed-effects) 없이 세 가지 주요 설명변수와 인구학·사회문화적 요인, 국가 수준 요인을 제외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고, 모델 2는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한 분석이다.

분석모형이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여 복지정책 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적으로 상호작용항은 모델 1과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 연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 정책 선호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기술특정성을 상정한다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모델 1에서는 평균적으로 0.175, 모델 2에서는 0.089만큼 더 높은 사회보험 정책 선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술특정성의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오프쇼어링이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특정성이 값이 증가할수록 양(+)의 방향으로 복지선호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가설에서 제시하였듯이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여기에서 보고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분석에서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추정한 결과,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기술특정성은 사회보호 선호에 양(+)의 효과를, 직업별 오프쇼어링은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모형을 분석했을 때 두 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의 경우, 두 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⁸⁾

다음으로 통제변수들이 개인의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국가 고정효과와 무관하게 소득이나 고용 상태(현재 실직 여부), 노조 가입 여부 등은 예상했던 결과를 보였다. 고소득일수록 복지정책 지지도가 낮은 반면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노조원인 경우 지지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호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기술 수준이 복지국가 선호 가하는 영향은 국가 고정효과 적용여

8)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추정한 결과, 오프쇼어링 변수가 18.7, 오프쇼어링과 기술 수준의 상호작용항이 13.2로 우려할만한 수준의 수치로 나타났다. 오프쇼어링과 기술특정성의 상호작용항은 5.15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 그리고 복지국가 선호

종속변수: 사회보호 선호(<i>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i>)		
	(1)	(2)
기술특정성	-0.084*** (0.030)	-0.022 (0.030)
직업별 오프쇼어링 (1=offshorable, 0=non-offshorable)	-0.344*** (0.124)	-0.149 (0.120)
기술특정성 × 직업별 오프쇼어링	0.175*** (0.044)	0.089** (0.042)
연령	0.003*** (0.001)	0.007*** (0.001)
소득	-0.063*** (0.006)	-0.059*** (0.006)
실직 여부	0.506*** (0.066)	0.514*** (0.064)
공공부문	-0.106* (0.060)	-0.076 (0.058)
기술 수준	-0.016*** (0.005)	0.010** (0.005)
노조 가입 여부	0.403*** (0.032)	0.252*** (0.034)
종교	0.031*** (0.005)	0.004 (0.005)
FDI stock	-0.006*** (0.0002)	-0.010*** (0.001)
기술 수준 × 직업별 오프쇼어링	0.008 (0.007)	-0.0001 (0.007)
상수	7.348*** (0.099)	7.985*** (0.141)
Country FE	No	Yes
N	20,850	20,850
Adjusted R ²	0.051	0.121
Residual Std. Error	2.010 (df = 20837)	1.935 (df = 20826)
F Statistic	94.307*** (df = 12; 20837)	120.186*** (df = 24; 2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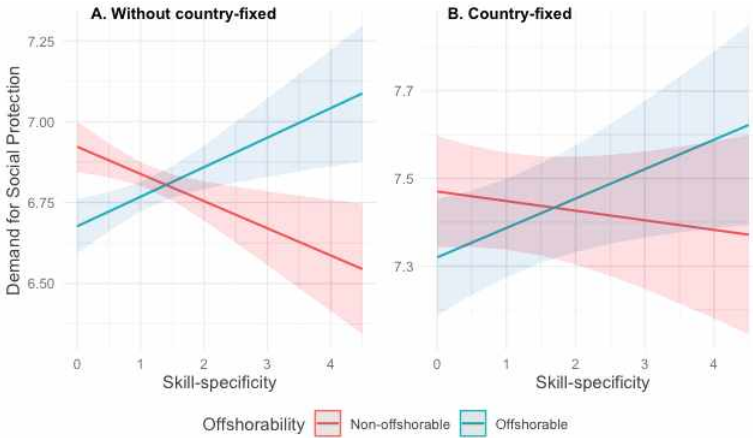
주: OLS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p<0.1; **p<0.05; ***p<0.01

부에 따라 달라졌다. 모델 1에서는 개인의 기술 수준이 높을 때 실업 관련 정책을 덜 지지하는 반면(-0.016) 국가별 편차를 고려한 모델 2에서는 오히려 복지국가 선호도가 상승하였다(0.010). 경험적 분석에서 한 시점(2008년)의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러 시점의 자료를 보았을 때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FDI 스톡이 증가하면 복지정책 선호가 반비례하였으며, 개인의 종교는 모델 1에서 사회보험 정책지지도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모델 2에서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공부문 여부(public sector) 또한 고정효과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모델 1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복지정책 선호를 감소시켰지만 모델 2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4〉는 분석 결과의 추정 회귀계수(coefficient)를 활용하여 95퍼센트(%) 신뢰구간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예측 선호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4.A〉와 〈그림 4.B〉는 각각 모델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그림 4.A〉에서는 기술특정성이 대략 2.4 이상부터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개인들의 사회보험 정책 지지도가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는 개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⁹⁾ 〈그림 4.A〉에서 특정적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들이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기술 특정성에서 기인한 노동시장 내 위험 때문에 이들의 복지국가 선호는 여전히 높으나(+),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선호(++)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수준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않았다는 데에서 가설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림 4.B〉에서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했을 때 오프쇼어링 위험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사회보호 정책선호가 기술특정성 구간 모두에서 95% 신뢰구간이 중첩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오프쇼어링이 기술특정성을 매개로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국가 수준의 맥락적 효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정치제도, 불평등 수준,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 등등 국가수준의 요인이 오프쇼어링 효과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위의 〈표 2〉에서 국가고정효과를 포함시킨 모형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9)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표본 중에서 기술특정성이 2.4 이상인 개인들이 전체 25,716명 중 1,24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14개국 전체 응답자의 약 4.85%가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때 복지국가 확대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부록의 〈표 A.1〉에 제시된 요약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특정성의 평균은 1.17(표준편차 0.67)이었다.

〈그림 4〉 복지국가 선호 예측



경험적 분석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수준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 효과보다는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 효과가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에 속한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면 이들은 다른 개인들에 비해 사회보험 확대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술특정성에서 비롯된 기술 이전성 여부가 개인의 기술 수준보다 복지정책 선호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 저숙련 노동자는 오프쇼어링에 취약할지라도(Rommel & Walter, 2018) 기술특정성이 낮다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적 기술처럼 기술 이전성이 낮거나 혹은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프쇼어링에 더욱 취약할뿐더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들에게서 더 높은 복지국가 선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먼저 국가 고정효과 적용 여부에 따라 몇 가지 변수들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항(기술특정성×직업별 오프쇼어링)이 복지국가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수치는 다를지언정 방향성이 같고(+)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기술특정성이나 직업별 오프쇼어링 등 변수들은 국가 고정효과를 모형에 포함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것과 달리, 고정효과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효과를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가 고정효과가 포착하는 국가별 고유한 특성—정치제도, 노동시장제도, 불평등 수준 등등—이 오프쇼어링 효과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세계화의 한 현상으로, 실업과 임금불평등 등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여러 부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한 국가의 사례에 초점을 맞춘 탓에 일반화가 어렵거나,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Garrett, 1998; Jensen et al., 2017; Mughan & Lacy, 2002; Rodrik, 1997; Walter, 2010). 오프쇼어링 수준이 유사함에도 국가별로 개인의 재분배 선호가 다른 것은 오프쇼어링이 그 자체로 복지 태도에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둘 사이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술특정성이 매개 효과를 갖는다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하였다.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 둘 다 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특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개인들이 오프쇼어링의 부정적 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정적 기술을 지닌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때에는 노동시장 내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복지정책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반면에 일반적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 위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복지정책 선호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유럽의 14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응답자를 포함하는 2008년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고정효과 포함 여부에 무관하게 특정적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경우 다른 개인들에 비해 더 높은 복지선호를 보이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개인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기술특정성에서 기인하는 기술 이전성이 개인의 복지태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적 기술일수록 기술의 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혹은 이전이 불가하므로, 재취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업에 매우 취약한 반면에 지속된 노동자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역시나 실업에 취약하지만(Rommel & Walter, 2018) 기술 이전성이 높다면 재취업은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Rommel & Walter(2018) 연구에 대한 대안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교차국가 서베이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후속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첫째, 오프쇼어링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별 맥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국가별 맥락적 요인이 선거제도인지, 노동시장제도인지,

불평등 수준인지, 아니면 기술 프로파일인지를 규명하고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험적 분석에서 2008년의 조사 자료만 다뤘기 때문에 여러 년도의 자료를 추가로 포함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프쇼어링을 측정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개인의 정확한 오프쇼어링 수준이 아니라 해당 직업군의 오프쇼어링 수준으로 대체했으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만큼 Blinder의 분류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를 잇는 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권기철. 2011. "서비스 오프쇼어링 기업의 진화." 《남아시아연구》, 17(1): 1-32.
- 권철우·황욱. 2018. "오프쇼어링 위협 효과가 숙련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대체적 투입관계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23(3): 1-27.
- 권형기. 2012. "생산의 세계화와 노동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52(1): 217-245.
- 남상섭. 2018.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 《무역연구》, 321-339
- 박문수·김화년·이경희. 2013. "오프쇼어링이 한국 기업의 생산성에 주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10): 4784-4790.
- 이경희·박문수·김인철. 2010. 《오프쇼어링이 생산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과제-업종별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 이상욱·권철우·최창훈. 2016.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요인분석." 《사회과학연구》, 55(1): 209-233.
- 조장희·허정. 2013. "한국의 제조기업 총요소생산성과 오프쇼어링의 선택." 《한국경제연구》, 31(4): 27-52.
- Acemoglu, Daron, & David Autor. 2011.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In Orley Ashenfelter and Davi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Vol. 4, Part B) (pp. 1043-1171), Amsterdam: Elsevier.
- Alt, James, & Torben Iversen. 2017. "Inequality,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1): 21-36.

- Anderson, Richard G., & Charles S. Gascon. 2007. "The Perils of Globalization: Offshoring and Economic Insecurity of the American Worker." *FRB of St. Louis Working Paper No. 2007-004A*. available at <http://dx.doi.org/10.2139/ssrn.962450>
- Antràs, Pol, & Davin Chor. 2013. "Organizing the Global Value Chain." *Econometrica*, 81(6): 2127-2204.
- Antràs, Pol, Luis Garicano, & Esteban Rossi-Hansberg. 2006. "Offshoring in a Knowledge Econom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1): 31-77.
- Antràs, Pol, & Elhanan Helpman. 2004. "Global Sourc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3): 552-580.
- Baldwin, Richard, & Anthony J. Venables. 2013. "Spiders and Snakes: Offshoring and Agglomeration in the Global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0(2): 245-254.
- Bernard, Andrew B., & Teresa C. Fort. 2013. *Factoryless Goods Producers in the US* (No. w19396).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linder, Alan S. 2009. "How Many US Jobs Might be Offshorable?." *World Economics*, 10(2): 41.
- Cho, Jang-Ok, Thomas F. Cooley, & Hyung Seok E. Kim. 2015. "Business Cycle Uncertainty and Economic Welfar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8(2): 185-200.
- Costinot, Arnaud, Dave Donaldson, Jonathan Vogel, & Iván Werning. 2013, September. "Comparative Advantage and Optimal Trade Taxes." In *Princeton University International Trade Seminar, Fall*.
- Ebenstein, Avraham, Ann Harrison, Margaret McMillan, & Shannon Phillips. 2014. "Estimating the Impact of Trade and Offshoring on American Workers Using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6(4): 581-595.
- Estevez-Abe, Margarita, Torben Iversen, & David Soskice.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Peter A. Hall and Davi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pp. 145-18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inseraas, Henning. 2009. "Income Inequality and Demand for Redistribution: A Multilevel Analysis of European Public Opinio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2(1): 94-119.
- Garrett, Geoffrey. 1998. *Partisan Politic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ngrich, Jane, & Ben Ansell. 2012. "Preferences in Context: Micro Preferences, Macro Contexts, and the Demand for Social Poli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12): 1624-1654.
- Hummels, David, Rasmus Jørgensen, Jakob R. Munch, & Chong Xiang. 2014. "The Wage Effects of Offshoring: Evidence from Danish Matched Worker-Firm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104(6): 1597-1629.
- Iversen, Torben, & David Soskice.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75-893.
- Iversen, Torben, & David Soskice. 2006.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s of Coalitions: Why Some Democracies Redistribute More Than Othe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2): 165-181.
- Jensen, J. Bradford, Dennis P. Quinn, & Stephen Weymouth. 2017. "Winners and Losers in International Trade: The Effects on US Presidential Vo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71(3): 423-457.
- Jeon, Yongsik, & Chul-Woo Kwon. 2018. "The Offshoring Threat and Wage Negotiation: Theory and Evidence." *Japan and the World Economy*, 45(C): 19-29.
- Johnson, Robert C., & Guillermo Noguera. 2012.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 Add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6(2): 224-236.
- Koopman, Robert, Zhi Wang, & Shang-Jin Wei. 2014. "Tracing Value-Added and Double Counting in Gross Exports." *American Economic Review*, 104(2): 459-94.
- Kramarz, Francis. 2008. *Offshoring, Wages,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Data Matching Imports, Firms, and Workers*. Palaiseau: Centre de Recherche

en Économie et Statistique.

- Krishna, Pravin, & Mine Zeynep Senses. 2014. "International Trade and Labour Income Risk in the US." *Review of Economic Studies*, 81(1): 186-218.
- Kwon, Chul-Woo. 2011. "Liberalization of Foreign Production, the Threat Effect, and Wage Inequality." In *Asian Meeting of Econometric Society*.
- Kwon, Chul-Woo. 2018. "The Plant-Moving Threat as a Motivation for Offshoring." *Korea and the World Economy*, 19(1): 51-84.
- Lupu, Noam, & Jonas Pontusson. 2011. "The Structure of Inequality and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2): 316-336.
- Mandelman, Federico, & Andrei Zlate. 2016. "Offshoring, Low-Skilled Immigration, and Labor Market Polarization."
- Margalit, Yotam. 2011. "Costly Jobs: Trade-related Layoffs, Government Compensation, and Voting in US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1): 166-188.
- Meltzer, Allan H., & Scott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927.
- Milberg, William, & Deborah Winkler. 2009. "Financialisation and the Dynamics of Offshoring in the USA."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4(2): 275-293.
- Moene, Karle Ove, & Michael Wallerstein. 2001. "Inequality, Social Insurance,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59-874.
- Mughan, Anthony, & Dean Lacy. (2002). "Economic Performance, Job Insecurity and Electoral Choi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3): 513-533.
- OECD. 2010. *Measuring Globalisation: OECD Economic Globalisation Indicators 2010*. Paris: OECD Publishing. available at <https://doi.org/10.1787/9789264084360-en>.
- OECD. 2016. "Offshoring activity, by type of offshoring",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Paris: OECD Publishing. available at https://doi.org/10.1787/empl_outlook-2016-graph39-en.
- Ottaviano, Gianmarco IP, Giovanni Peri, & Greg C. Wright. 2013. "Immigration, Offshoring, and American Job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5): 1925-59.
- Rehm, Philipp. 2009. "Risks and Redistribution: An Individual-Leve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7): 855-881.

- Rodrik, Dani. 1997. *Trade, Social Insurance, and the Limits to Globalization* (No. w5905).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Rommel, Tobias, & Stefanie Walter. 2018.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Offshoring: How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Shapes Party Prefer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1(5): 621-658.
- Rueda, David. 2018. "Food Comes First, Then Morals: Redistribution Preferences, Parochial Altruism, and Immigration in Western Europe." *The Journal of Politics*, 80(1): 225-239.
- Scheve, Kenneth, & David Stasavage. 2006. "Religion and Preferences for Social Insurance."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3): 255-286.
- Shayo, Moses. 2009. "A Model of Social Identity with an Application to Political Economy: Nation, Cla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2): 147-174.
- Sly, Nicholas, & Anson Soderbery. 2014. "Strategic Sourcing and Wage Bargaining."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09: 172-187.
- Walter, Stefanie. 2010.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Testing the Microfoundations of the Compensation Hypothesi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2): 403-426.
- Walter, Stefanie. 2017. "Globalization and the Demand-Side of Politics: How Globalization Shapes Labor Market Risk Perceptions and Policy Preference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5(1): 55-80.
- Wright, Greg C. 2014. "Revisiting the Employment Impact of Offshoring." *European Economic Review*, 66: 63-83.
- Zlate, Andrei. 2016. "Offshore Production and Business Cycle Dynamics with Heterogeneous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00: 34-49.

〈부록〉

〈표 A.1〉 요약통계

	조작화 (operationalization)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사회보험 선호도	ESS question D18-20	28234	6.893	2.096	0	10
재분배 선호도	ESS question B30	28151	3.799	1.025	1	5
독립변수						
기술특정성	Iversen and Soskice(2001), matched on ISCO	25716	1.17	0.672	0.48	4.11
오프쇼어링 (0=non-offshorable, 1=offshorable)	Blinder(2009), matched on ISCO	25716	0.376	0.484	0	1
개인수준 통제 변수						
연령	ESS question F3	28424	47.92	18.535	14	123
가구소득	ESS question F32	22696	0.027	2.652	-7	6
고용상태 (실직 여부)	ESS question F8	28496	0.0526	0.223	0	1
노동조합원	ESS question F8	28387	0.2229	0.416	0	1
공공부문	Based on NACE code 75	28496	0.053	0.225	0	1
기술 수준 (education years)	ESS question F7	28264	12.25	4.389	0	25
종교	ESS question C21	28359	4.657	2.948	0	10
국가수준 통제 변수						
FDI 스톱	UNCTAD (2013)	28496	104.50	63.677	21.83	254.55

〈표 A.2〉 재분배 선호 결정요인

종속변수: 재분배 선호(<i>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i>)		
	(1)	(2)
기술 특성성	0.020 (0.015)	0.008 (0.015)
직업별 오프쇼어링 (1=offshorable, 0=non-offshorable)	-0.040 (0.062)	-0.003 (0.060)
기술 특성성 × 직업별 오프쇼어링	0.044** (0.022)	0.034 (0.021)
연령	0.001 (0.0004)	0.002*** (0.0004)
소득	-0.049*** (0.003)	-0.060*** (0.003)
실직 여부	0.189*** (0.033)	0.118*** (0.032)
공공기관 근무	0.030 (0.030)	-0.007 (0.029)
기술 수준	-0.024*** (0.002)	-0.012*** (0.002)
노조 가입 여부	0.039** (0.016)	0.198*** (0.017)
종교	0.003 (0.002)	-0.011*** (0.002)
FDI stock	-0.001*** (0.0001)	0.001*** (0.0003)
기술 수준 × 직업별 오프쇼어링	-0.007* (0.004)	-0.010*** (0.004)
Constant	4.174*** (0.050)	3.524*** (0.071)
Country FE	No	Yes
Observations	20,816	20,816
Adjusted R ²	0.052	0.123
Residual Std. Error	1.015 (df = 20803)	0.976 (df = 20791)
F Statistic	96.827*** (df = 12; 20803)	122.957*** (df = 24; 20791)

주: OLS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p<0.1; **p<0.05; ***p<0.01

Globalization and Demand for the Welfare State: How Offshoring Shapes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Nara Kang & Hyeok Yong Kwon

When a major threat of offshoring is redundancy, it is expected that people with highly offshorable jobs would support expansion of welfare policy. However, the real world shows variability across countries. Why do some countries have more redistributive preferences against offshoring than others? How does offshoring determine demand for welfare states? In this study, we argue that unemployment risk within individual jobs conditions effects of offshoring on support for social policy. Specifically, when individuals with non-transferable, specific skills are exposed to offshoring, they would be more likely than those without offshorability to support expansion of social protection. In other words, when higher offshoring and redundancy risks overlap, interaction effects a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Our statistical analysis using survey data of 14 West European countries, the 2008 European Social Survey, identifies evidence that supports our argument.

※ Keywords: offshoring, skill specificity, the welfare state, social policy, policy preferences